미술치료연구 제29권 제4호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22. Vol. 29, No. 4, 1061～1082
https://doi.org/10.35594/kata.2022.29.4.012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2011-2021)을 중심으로[1)]

동 혜 정[2)] 박 성 혜[3)]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상담이론별 연구내용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제목과 초록에 상담이론이 명시되어있는 151편을 선정하여 연도별, 연구유형별, 연구내용별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동향은 2015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인지행동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둘째, 연구유형별 동향은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다. 셋째, 실제 임상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와 실험연구 총 122편의 연구내용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은 성인이 가장 많았고 정신분석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는 집단이 가장 많았고 대상관계, 인지행동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치료회기는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인지행동, 인간중심, 게슈탈트가 30회기 이상 진행되었다. 치료목표는 자아성장이 가장 많았고 정신분석, 인간중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술활동 및 기법은 상담이론과 치료목표에 따라 각각 특징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미술치료, 상담이론, 연구동향

---

1) 본 논문은 동혜정(2022)의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동혜정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석사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성혜 /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교수 /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E-mail: elly9691@sookmyung.ac.kr

www.kci.go.kr

Ⅰ.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기계화, 정보화된 사회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과잉 정보와 자극들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부적응, 갈등,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다.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정신건강 상태는 평균 68.8점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7명(69.7%)은 최근 주변에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인 증상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트렌드모니터, 2020). 이처럼 현대인은 지나친 경쟁, 개인화된 사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심리치료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돕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을 완화하고 나아가서 심리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권석만, 2012). 심리치료의 한 분야인 예술치료는 심리적 어려움을 실제적인 예술 작업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심적 상태를 형상화하거나 표현하도록 안내한다(이유경, 2012). 예술치료에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등이 있으며 그 중 미술치료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품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공마리아, 김갑숙, 박경규, 이근매, 임호찬, 전순영 등, 2009). 미술치료는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심상의 표현으로 방어가 줄어들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승화시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도와줌으로써 상담에 효과적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아울러 미술치료는 단지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기능까지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술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확대되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미술치료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영은, 박은선, 2019). 그러나 치료사의 양적 증대에 따라 충분한 교육과정과 임상경험 없이 단기간 수업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등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자격증 발급이 성행하고 있다(최규진, 2015). 결국, 이로 인한 비전문적인 상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최명선, 김봉환, 2014). 따라서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대한 이해, 매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술치료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김태완, 2021).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위하여 심리치료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상담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권석만, 2012). 상담이론은 우리가 다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치료에 적용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 장면에 적용하지 않고 단지 이론만을 배우거나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 장면에서 적용되는 기법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으로, 이론과 기법은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Rubin, 1984). 이명우와 박명희(2013)의 연구에서는 상담현장에서 미술치료를 활용하는 상담자의 경험을 질적 연구 분석한 결과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담 실제와 이론이 연결되는 사례개념화가 되지 않음을

www.kci.go.kr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치료사는 다양한 이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기법을 통합하여 실제 미술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론과 실제는 긴밀한 관계이며 치료에서의 상담이론은 매우 기본적인 영역으로 복잡한 인간행동과 문제행동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틀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이론적 도움 없이 인간발달과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김형란, 2013). 또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치료사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애쓰지만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Murdock, 2019).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Gerlitza, Regeva, & Snir, 2020). 미술치료는 상담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미술치료의 방법과 기법, 매체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조용태, 2014). 따라서 미술치료 분야에서도 상담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상담이론의 이해를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담이론이란 치료 관계와 치료 장면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인간관과 주요개념, 치료방법, 치료기법과 매체 사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Huss, 2015). 현재 사용되는 명칭을 달리하는 400여 개가 넘는 상담이론이 존재하며, 서로 접목되고 통합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Corsini, 2002). 상담이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대 심리치료 발전 시기에 따라 19세기 정신역동적 접근을 시작으로 행동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이라는 커다란 흐름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마음챙김, 자아초월 심리학 등 다양한 이론과 기법으로 발전해왔다(권석만, 2012). 또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정신분석,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인간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인지행동치료(CBT), 합리적정서행동치료(REBT),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제3동향인 알아차림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등이 있다.

미술치료 또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후 분석심리학, 인본주의, 인지행동 등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흡수하고 적용하면서 함께 성장해 왔다(박성혜, 길은영, 곽진영, 2021).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의 선두주자 Rubin(2016)은 'Approaches to Art Therapy'에서 미술치료의 이론을 정신역동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명상적 접근, 인지 및 신경과학 접근, 체계적 접근, 통합적 접근으로 제시하였다. Rubin(2016)의 저서 외 다수의 미술치료 개론서에 공통으로 나타난 미술치료 이론을 살펴보면 정신분석 미술치료, 분석심리학 미술치료, 게슈탈트 미술치료, 인간중심 미술치료, 인지행동 미술치료이다(박성혜, 길은영, 곽진영, 2021; 신동열, 한상희, 2016; 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 2011; 정여주, 2003; 정유진, 2019;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Hogan, 2017; Huss, 2015; Malchiodi, 2012; Rubin, 2001). 아울러 각 개론서의 특징에 따라 자기심리학적, 개인심리학적, 실존주의적, 교류분석적, 해결중심적, 현실치료적, 체계론적 가족미술치료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미술치료 개론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정신분석 미술치료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도록 하여 억압된 무의식을 표현하도록 돕는다(최외선 등, 2006). 선행연구로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정신역동적 미술치료(김인선, 2014), 중년기 여성의 자기 이해를 위한 정신역동적 집단미술치료(지완종, 이은하, 2019) 등이 있는데 이상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무의식적 갈등을 작품으로 표출시키며 의식화함으로써 자신의 문

www.kci.go.kr

제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는 내담자가 꿈이나 환상에서 보았던 것을 실제로 그리는 행위를 통하여 형상화하고 내담자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며 참된 자기를 경험한다(한숙자, 200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융의 개성화 관점에서 본 우울성향의 중년여성의 미술치료중재과정(길은영, 장인희, 2016)과 군 관심병사의 우울과 불안 감소를 위해 융의 적극적 상상을 활용한 미술치료(어예지, 이모영, 2018) 등이 있다. 어예지와 이모영(2018)의 연구에서 융의 적극적 상상 4단계를 미술치료에 접목하여 미술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군 관심병사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림이 되어 느낌을 이야기함으로써 미해결된 과제를 알아차리는 경험을 한다(김민주, 원희랑, 2012). 선행연구로 우울과 관계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정순택, 오현숙, 2017)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한 연구(배진영, 2014; 성자경, 201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중심적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개발시켜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돕는다(신동열, 한상희, 201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뇌성마비 성인여성의 자아개념 및 자기표현의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적 미술치료(서로사, 전순영, 2015), 등교거부 청소년의 등교거부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곽진영, 원희랑, 2019)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발적인 미술치료를 통해 내면을 탐색하며 자기실현 경험을 통하여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미술치료는 미술작품을 통해 내담자가 가진 왜곡된 태도와 비합리적인 사고를 재구성하도록 돕는다(박성혜, 길은영, 곽진영, 2021). 선행연구로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하애희, 이수연, 2012), 인지행동 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정대영, 정창숙, 2015), 20대 여대생의 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정은주, 2018) 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것과 같이 인지행동 미술치료는 아동부터 성인 대상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치료에서 상담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전문적인 연구의 장인 학술지는 해당 학문의 공식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기능을 가진다(조성호, 2003). 더불어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 발전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동향 분석 연구는 미술치료 연구 동향과 진행 과정 및 전문성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미술치료 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한국·미국의 미술치료 연구 동향(최윤희, 김갑숙, 최외선, 2005), 캐나다 미술치료학회지의 연구 동향(김도희, 2020)이 있다. 특정 대상 미술치료 연구 동향은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김미진, 강영주, 2014; 박미숙, 이근매, 2015; 송은경, 원희랑, 2018; 이미옥, 2006; 장성숙, 이근매,

www.kci.go.kr

2013) 등이 있으며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주제나 증상을 다루는 연구와 매체나 기법을 다루는 연구(소현경, 이근매, 2017; 정하욱, 김갑숙, 2018; 최미경, 정영인, 2017; 최은영, 이은봉, 조규영, 2015)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 미술치료의 전반적 흐름을 다룬 동향 연구는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김수빈, 홍은주, 2008)과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웅용, 2011)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미술치료 연구 동향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정희 등(2011)의 연구 이후 최근 10년간의 미술치료 연구 동향은 한정된 대상을 다루거나 연구 주제, 증상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울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상담이론 접근방법의 구체적 분석과 매체와 기법 활용 등이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동향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명상기반 예술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및 고찰(신문자, 이미선, 2021), 인지행동 미술치료 연구동향(민진욱, 천기정, 김태은, 2021)이 있다.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동향 연구는 현재 특정 이론의 연구만이 존재하며 전반적인 동향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술치료 이외의 전반적인 상담이론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 상담이론에 기반한 음악치료 연구동향(이보라, 2020)만이 있으며 미술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상담이론 기반 동향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다양한 상담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고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제 현장에서 상담이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KCI 등재 논문을 대상으로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도별, 연구유형별, 연구내용별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유형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내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KCI 등재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공개하고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의 제목과 초록에서 미술치료나 상담이론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술치료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자료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논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단계로 '미술치료'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486편의 학술지 논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계로 수집된 자료 중 제목에서 미술치료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1,178편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3단계로 상담이론별 분류를 통하여 정신분석 11편, 정신역동 4편, 대상관계 6편, 자기심리학 2편, 분석심리학 11편, 개인심리학 3편, 행동주의 2편, 인지행동 23편, 합리적정서행동치료 5편, 인간중심 12편, 게슈탈트 8편, 실존주의 2편, 현실치료 15편, 해결중심 12편,

www.kci.go.kr

마음챙김 6편, 수용전념치료 1편, 긍정심리학 17편, 교류분석 8편, 체계적/가족치료 3편이 선정되었다. 4단계로 연구대상 적합성 확인을 위해 선정된 연구 자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종 151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담이론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51편의 논문에서 19개의 상담이론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분석, 정신역동,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행동주의, 인지행동, 합리적정서행동치료, 인간중심, 게슈탈트, 실존주의, 현실치료, 해결중심, 마음챙김, 수용전념치료, 긍정심리학, 교류분석, 체계적/가족치료이다.

표 1. 상담이론 분류

상담이론	내용
정신분석	정신분석, 프로이트, 라캉, 현대정신분석
	정신 역동적
대상관계	대상관계, 위니캇
분석심리학	분석심리학, 융, 융학파
인지행동	행동주의
	인지치료
	합리적정서행동치료
인간중심	인간중심, 비지시적
게슈탈트	게슈탈트
현실치료	현실치료, 현실요법
해결중심	해결중심, 단기해결중심
마음챙김	마음챙김,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
교류분석	교류분석
기타	자기심리학, 개인심리학, 실존주의, 수용전념치료, 체계적/가족치료

김형란(2013)은 '상담학개론 교재에 나타난 상담이론 내용분석' 연구에서 각 교재는 특징적인 구성방식으로 상담이론을 제시하며, 구성방식의 하나로 저자의 관점에 따라 상담이론을 공통된 특징별로 묶어 유목화하여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상담이론을 유목화하여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미술치료 개론서(박성혜, 길은영, 곽진영, 2021; 신동열, 한상희, 2016; 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 2011; 정여주, 2003; 정유진, 2019;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Hogan, 2017; Huss, 2015; Malchiodi, 2012; Rubin, 2001, 2016)들을 참고하였고 상담이론을 최종 12개로 분류하였다. 논문 수가 3개 이하로 나타난 자기심리학, 개인심리학, 실존주의, 수용전념치료, 체계적/가족치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유목에 따른 상담이론 분류는 표 1과 같다.

분석항목과 분류기준

상담이론 기반 연도별・유형별 분류기준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을 연도별・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기정희 등(2011)은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에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의 미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미술치료 동향 연구는 특정한 주제나 대상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가 게재된 시점을 2011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유형 분류는 Browm(1969)이 개발한 분류기준을 기정희 등(2011)이 미술치료 연구에 맞게 수정한 분석 틀을 사용하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기타연구로 분류하였다.

상담이론 기반 연구내용별 분류기준

Rubin(1984)은 상담이론이 실제 치료 장면에

www.kci.go.kr

표 2. 분석항목 및 분류기준

분석항목		분류기준
연도		2011년-2021년
연구유형		조사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기타
연구내용	연구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연구도구	투사검사, 객관검사투사검사, 객관검사
	치료형태	개인, 집단, 혼합
	치료회기	10회기 미만, 10-15회기 미만, 15-20회기 미만, 20-25회기 미만, 25-30회기 미만, 30회기 이상
	치료시간	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120분 미만, 120-150분 미만, 150분 이상, 기타
	치료목표	자아성장, 심리건강 회복, 스트레스 완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장애극복, 기타
	미술활동 및 기법	상담이론별, 공통

적용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치료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합하여 각 상담이론을 연구내용별로 분류하고 연구내용에 따른 하위항목을 연구대상, 연구도구, 치료형태, 치료회기, 치료시간, 치료목표, 미술활동 및 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도구는 미술치료의 특성에 맞게 투사검사와 객관검사로 분류하였으며 연구방법에 제시되어있고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한 연구도구만을 분석하였다. 객관검사는 유형별로 유목화하여 1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검사는 검사명을 제시하였다. 치료형태, 치료회기, 치료시간, 치료목표, 미술활동 및 기법은 선행연구(기정희 등, 2011; 김수빈, 홍은주, 2008; 민진욱, 천기정, 김태은, 2021)들의 분류기준을 참조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항목 및 분류기준은 표 2와 같다.

Ⅲ. 결 과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도별 동향

연도별 연구 동향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논문 151편(100%)의 연도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편(4.6%)으로 가장 적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5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6편(17.2%)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게슈탈트를 제외한 모든 상담이론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상담이론별 특징으로는 인지행동 30편(19.9%), 긍정심리 17편(11.3%), 정신분석과 현실치료 15편(9.9%), 인간중심과 해결중심 12편(7.9%), 분석심리학과 기타 11편(7.3%), 게슈탈트와 교류분석 8편(5.3%), 대상관계와 마음챙김 6편(4.0%)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이 30편(19.9%)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관계, 게슈탈트, 교류분석은 2016년 이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이다. 상담이론에 따른 연도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www.kci.go.kr

표 3.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도별 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N*(%)
정신분석	1	1	2	1	2	1	3	1	3			15(9.9)
대상관계		1			4	1						6(4.0)
분석심리			2	1	1	1	1	2	2	1		11(7.3)
인지행동	2	1		2	8	6	2	1	3	2	3	30(19.9)
인간중심	2	1			1	3		1	3	1		12(7.9)
게슈탈트	2	1	1			1	3					8(5.3)
현실치료	2		3		1		3	1	1	2	2	15(9.9)
해결중심	2	1	1	1	2	1		1	2	1		12(7.9)
마음챙김		1			1			1		2	1	6(4.0)
긍정심리		1	2	1	3		1	4	2	3		17(11.3)
교류분석	1	3	2		2							8(5.3)
기타	2	1	1	1	1			2		2	1	11(7.3)
N (%)	14 (9.3)	12 (7.9)	14 (9.3)	7 (4.6)	26 (17.2)	14 (9.3)	13 (8.6)	14 (9.3)	16 (10.6)	14 (9.3)	7 (4.6)	151 (100)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유형별 동향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유형 동향

연구유형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1편(100%)의 논문 중 실험연구 63편(41.7%), 사례연구 59편(39.1%), 기타연구 27편(17.9%), 조사연구 2편(1.3%)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의 과정과 효과 및 성과를 연구하는 사례·실험연구가 122편(80.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유형 동향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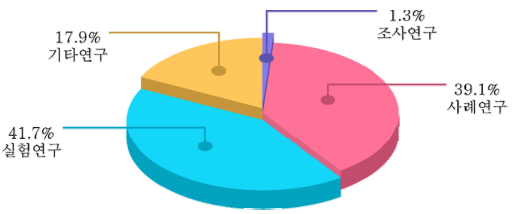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이론 기반 연구유형 동향

연구유형별 상담이론 논문 수

상담이론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사례연구에서는 모든 상담이론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실험연구에서는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례연구의 경우 인지행동 11편(18.6%), 인간중심 10편(16.9%)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의 경우 인지행동과 긍정심리학이 각각 13편(2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실치료 11편(17.5%), 해결중심 10편(1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연구는 정신분석과 기타 이론에서 각각 1편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연구는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인지행동이 각각 6편(22.2%)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별 상담이론 논문 수는 표 4와 같다.

www.kci.go.kr

표 4. 연구유형별 상담이론 논문 수

구분	조사	사례	실험	기타	*N*(%)
정신분석	1	8		6	15(9.9)
대상관계		5		1	6(4.0)
분석심리		5		6	11(7.3)
인지행동		11	13	6	30(19.9)
인간중심		10	2		12(7.9)
게슈탈트		3	4	1	8(5.3)
현실치료		4	11		15(9.9)
해결중심		2	10		12(7.9)
마음챙김		2	3	1	6(4.0)
긍정심리		3	13	1	17(11.3)
교류분석		3	5		8(5.3)
기타	1	3	2	5	11(7.3)
N (%)	2 (1.3)	59 (39.1)	63 (41.7)	27 (17.9)	151 (100)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내용별 동향

상담이론이 미술치료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논문 151편 중 임상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59편)와 실험연구(63편)를 통합하여 총 12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성인 52편(42.6%), 아동 31편(25.4%), 청소년 30편(24.6%), 노인 5편(4.1%), 기타 4편(3.3%)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인지행동, 긍정심리학에서 성인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인간중심, 게슈탈트에서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현실치료는 비교적 다양한 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 연구 대상의 논문 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상담이론별 연구 대상 논문 수

구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N*(%)
정신분석	2	1	4	1		8(6.6)
대상관계	2	2	1			5(4.1)
분석심리	1	1	3			5(4.1)
인지행동	4	7	12	1		24(19.7)
인간중심	6	4	2			12(9.8)
게슈탈트	4	1	2			7(5.7)
현실치료	5	4	4	2		15(12.3)
해결중심	2	4	5		1	12(9.8)
마음챙김		1	3		1	5(4.1)
긍정심리	1	5	9	1		16(13.1)
교류분석	4		4			8(6.6)
기타			3		2	5(4.1)
N(%)	31(25.4)	30(24.6)	52(42.6)	5(4.1)	4(3.3)	122(100)

www.kci.go.kr

연구 도구

연구 도구를 분석한 결과 투사검사를 실시한 논문은 55편(45.1%), 객관검사를 실시한 논문은 116편(95.1%)으로 나타났다. 투사검사는 총 73회(100%) 실시되었으며 KFD가 17회(23.3%)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객관검사는 분석 논문 중 6편(4.9%)을 제외한 논문에서 총 224회 실시되었다. 상담이론별 투사검사 동향은 표 6, 객관검사 동향은 표 7과 같다.

치료 형태

미술치료의 치료 형태를 분석한 결과 집단 93편(76.2%), 개인 26편(21.3%), 혼합 3편(2.5%)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미술치료는 인간중심이 8편(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지행동 6편(23.1%), 정신분석 3편(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관계, 해결중심, 마음챙김과 교류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단미술치료는 인지행동이 18편(1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긍정심리학 14편(15.1%), 현실치료 13편(14.0%), 해결중심 11편(11.8%), 교류분석 8편(8.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 치료 형태의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인지행동의 경우 개인과 집단에서 공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분석과 인간중심은 개인미술치료에서 긍정심리학과 현실치료는 집단미술치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회기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의 치료 회기를 분석한 결과 10-15회기 미만이 62편(50.8%)으로

표 6. 상담이론별 투사검사 동향

구분	논문 수	투사검사(사용된 논문 수)	검사 개수	검사 미실시
정신분석	8	HTP(2), K-HTP(2), KFD(3), PSCD(1), SCT(2)	10	2
대상관계	5	HTP(2), K-HTP(1), KFD(1), KSD(1), SCT(1), 모자화(1)	7	
분석심리	5	HTP(1), K-HTP(1), KSD(1), PITR(1), SCT(1)	5	3
인지행동	24	KSD(1), PITR(4), DAS(1)	6	18
인간중심	12	HTP(2), K-HTP(4), KFD(4), DAP(1), CAT(1), BGT(1), 자유화(1)	14	4
게슈탈트	7	HTP(1), KFD(2), KSD(2), LMT(1), BND(1)	7	1
현실치료	15	KFD(2), PITR(2), PPAT(1)	5	8
해결중심	12	PPAT(1), KHD(1)	2	10
마음챙김	5	K-HTP(1), DAS(1)	2	3
긍정심리	16	K-HTP(5), KFD(2), KSD(3), PITR(1)	11	9
교류분석	8	HTP(1), KFD(2)	3	5
기타	5	KFD(1)	1	4
N	122	73	73	67

주. 검사 개수는 중복 포함 빈도수임.

www.kci.go.kr

표 7. 상담이론별 객관검사 동향

구분	논문 수	객관검사(사용된 논문 수)	검사 개수	검사 미실시
정신분석	8	우울(2), MMPI(2), 행동(1), 자기표현(1), SCL-90-R(1) SES(1), 일상생활(1), 꿈기능채점(1)	10	2
대상관계	5	증상(1), 불안(1), 애착(1), 인터넷중독자가진단(1), 대인관계(2), 결혼만족도(1), 부부의사소통(1), 부부갈등지수(1)	9	1
분석심리	5	K-WISC-Ⅲ(1), MMPI(2), 우울(3), 불안(2), 자기상-SIQYA(1)	9	1
인지행동	24	사회-심리적건강측정(1), 스트레스(6), 자기조절(1), 효능감(2), 회복탄력성(1), 부모역할만족도(1), 학교생활적응(1), 행동(6), 정신건강(1), 공감(2), 적응행동(1), 애착(2), SSRS(2), SES(2), PCL(1), 정서지능(1), 불안(6), 의사소통기술(1), 분노(2), 우울(3), ROCFT(1), EAT-26(1), 자동적사고(1), 증상(2), 역기능적태도(1),	49	
인간중심	12	행동(3), 자아개념(2), 우울(2), SES(4), SEI(1), 대인관계(1), 정서조절(1), 자기표현(1), 친사회적행동(1), 정서안정감(1), 자아탄력성(1), 등교거부경향성(1)	19	1
게슈탈트	7	효능감(2), 대인관계(3), 다차원심리검사 S형(1), 행동(1), 애착(1), 학교생활적응(1), 우울(1), SES(2), 자아정체감(1)	13	
현실치료	15	스트레스(4), 학교적응(1), 효능감(3), 자립의지(1), 감사성향(1), 자아통합감(2), 불안(1), 우울(1), 내외통제성(3), 행복감(1), SES(2), 행동(1), 대인관계(2), 자기표현(1), 노인생활만족(1)	25	
해결중심	12	몰입척도(1), SES(1), 문제해결(4), 스트레스(1), 우울(1), 죄책감(1), 학교생활적응(2), 행복감(1), 임파워먼트(1), 자아탄력성(1), 해결중심척도(1), 효능감(1), 사회적기술(1)	17	1
마음챙김	5	삶의 동기(1), 삶의 기대(1), 마음챙김기술(2), 자기조절(1), 학교부적응(1), 스트레스(1), 대인관계(1), 우울(1), 불안(1)	10	
긍정심리	16	SES(4), 효능감(4), 자아탄력성(2), 대처방안(1), 학교생활적응(3), 우울(4), 불안(1), 스트레스(4), 안녕감(5), 행복감(2), 대인관계(1), 사회적지지(1), 긍정정서(3), 태도(1), 건강지각(1), 학습동기(1)	38	
교류분석	8	부부친밀감(1), 부부의사소통(1), 대인관계(1), SES(2), 자아탄력성(2), 행동(4), 증상(1), 스트레스(1), 학교생활적응(2)	15	
기타	5	SES(1), 행동(1), 의사소통(3), 정서표현(2), 효능감(1), 안녕감(1), 심리적유연성(1)	10	
N	122	224	224	6

주. 검사 개수는 중복 포함 빈도수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5-20회기 미만 22편(18.0%), 20-25회기 미만 15편(12.3%), 30회기 이상 13편(10.7%), 10회기 미만 8편(6.6%), 25-30회기 미만 2편(1.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인지행동, 인간중심, 게슈탈트에서는 30회기 이상의 미술치료가 진행되었다. 반면 10회기 미만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8. 상담이론별 치료 형태 분석

구분	개인	집단	혼합	*N*(%)
정신분석	3	5		8(6.6)
대상관계		4	1	5(4.1)
분석심리	2	3		5(4.1)
인지행동	6	18		24(19.7)
인간중심	8	4		12(9.8)
게슈탈트	2	5		7(5.7)
현실치료	2	13		15(12.3)
해결중심		11	1	12(9.8)
마음챙김		4	1	5(4.1)
긍정심리	2	14		16(13.1)
교류분석		8		8(6.6)
기타	1	4		5(4.1)
N (%)	26 (21.3)	93 (76.2)	3 (2.5)	122 (100)

현실치료, 해결중심,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교류분석에서는 25회기 이상의 미술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15회기 미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 치료 회기의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치료 시간

미술치료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와 혼합으로 진행된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치료 시간을 분석한 결과 90-120분 미만이 44편(36.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90분 미만 37편(30.3%), 60분 미만 23편(18.9%), 120-150분 미만 11편(9.0%), 기타 5편(4.1%), 150분 이상 2편(1.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대상관계는 60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 치료 시간의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상담이론별 치료 회기 분석

구분	10회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25-30 미만	30회 이상	*N*(%)
정신분석		2	1	3		2	8(6.6)
대상관계		1	1			3	5(4.1)
분석심리		1	1			3	5(4.1)
인지행동		15	5	2		2	24(19.7)
인간중심		2	4	3	1	2	12(9.8)
게슈탈트		2	3	1		1	7(5.7)
현실치료		8	4	3			15(12.3)
해결중심	3	9					12(9.8)
마음챙김	1	2	1	1			5(4.1)
긍정심리	4	11	1				16(13.1)
교류분석		6	1	1			8(6.6)
기타		3		1	1		5(4.1)
N(%)	8(6.6)	62(50.8)	22(18.0)	15(12.3)	2(1.6)	13(10.7)	122(100)

www.kci.go.kr

표 10. 상담이론별 치료 시간 분석

구분	60분 미만	60-90 미만	90-120 미만	120-150 미만	150분 이상	기타	*N*(%)
정신분석		2	2	1		3	8(6.6)
대상관계	4	1					5(4.1)
분석심리	2	3					5(4.1)
인지행동	5	6	11	1		1	24(19.7)
인간중심	5	4	3				12(9.8)
게슈탈트		5	2				7(5.7)
현실치료	3	8	3	1			15(12.3)
해결중심		3	6	1	2		12(9.8)
마음챙김			3	2			5(4.1)
긍정심리	2	4	10				16(13.1)
교류분석	2		3	2		1	8(6.6)
기타		1	1	3			5(4.1)
N(%)	23(18.9)	37(30.3)	44(36.1)	11(9.0)	2(1.6)	5(4.1)	122(100)

치료 목표

치료목표는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복수의 치료 목표가 제시된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치료목표를 분석한 결과 자아 성장 39편(25.5%), 심리 건강회복 33편(21.6%)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 27편(17.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25편(16.3%),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15편(9.8%), 스트레스 완화 11편(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극복은 3편(2.0%)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은 자아 성장 4편(50.0%), 대상관계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3편(49.9%), 분석심리학은 심리 건강회복 4편(66.7%)에서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담이론별 치료목표의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미술활동 및 기법

미술활동 및 기법을 분석한 결과 난화, 콜라주, 만다라, 가면, 소망나무 등 미술활동과 기법이 상담이론별 차이 없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은 첫 기억 그리기 등, 대상관계는 중간대상 만들기 등, 분석심리학은 꿈 작업, 나/너 상징 만들기 등이 사용되었다. 인지행동은 생각노트, A-B-C-D-E 과정 만화 그리기 등이 사용되었으며 인간중심은 자유주제/표현 등, 게슈탈트는 지금 기분 그리기 등, 현실치료는 나의 욕구탐색 등, 해결중심은 기적 그림 그리기 등, 마음챙김은 명상, 감정 알아차림 등, 긍정심리학은 긍정 자화상, 감사일기 쓰기 등, 교류분석은 스트로크 주고받기 등을 사용하였다. 상담이론의 특징적인 미술활동 및 기법만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www.kci.go.kr

표 11. 상담이론별 치료 목표 분석

구분	자아성장	심리건강 회복	스트레스 완화	의사 소통 및 대인관계	부적응 및 문제 행동개선	장애극복	기타	*N*(%)
정신분석	4(50.0)	2(25.0)					2(25.0)	8(5.2)
대상관계	1(16.7)	1(16.7)		3(49.9)			1(16.7)	6(3.9)
분석심리	1(16.7)	4(66.7)			1(16.7)			6(3.9)
인지행동	3(10.3)	7(24.2)	5(17.3)	3(10.3)	3(10.3)	2(6.9)	6(20.7)	29(19.0)
인간중심	6(40.0)	4(26.6)		3(20.0)	1(6.7)		1(6.7)	15(9.8)
게슈탈트	4(33.3)	2(16.8)		4(33.3)	1(8.3)		1(8.3)	12(7.8)
현실치료	6(37.4)	2(12.5)	2(12.5)	2(12.5)	1(6.3)		3(18.8)	16(10.5)
해결중심	4(28.6)	1(7.1)	1(7.1)	4(28.6)	1(7.1)		3(21.5)	14(9.2)
마음챙김			1(16.7)	1(16.7)	2(33.3)		2(33.3)	6(3.9)
긍정심리	6(26.1)	7(30.4)	1(4.4)	1(4.4)	3(13.0)		5(21.7)	23(15.1)
교류분석	2(16.7)	2(16.7)	1(8.3)	2(16.7)	2(16.7)	1(8.3)	2(16.7)	12(7.8)
기타	2(33.3)	1(16.7)		2(33.3)			1(16.7)	6(3.9)
N(%)	39(25.5)	33(21.6)	11(7.2)	25(16.3)	15(9.8)	3(2.0)	27(17.6)	153(100)

주. 중복 포함 빈도수임.

표 12. 상담이론별 미술활동 및 기법 분석

구분	미술활동 및 기법	
	상담이론별	공통
정신분석	한국화 물감, 사진, 영화, 어릴적 꿈, 길 그림, 음악 듣고 표현하기 등 자발적 예술 행위, 길 그림, 가면, 버킷리스트, 첫 기억 그리기, 상상하고 그리기 등	난화, 콜라주, 만다라, 손 본뜨기, 점토, 가면 만들기, 색소금, 화산, 감정 파이, 자화상, 장점 찾기, 소망나무, 상장 만들기 선물 만들기, 동글화, 계란화, 웅덩이화, LMT, 동물 가족화, 9분할통합회화법, 인생그래프, 타임캡슐, 안전한 공간, 걱정인형 등
대상관계	피규어, 중간대상/상징물 만들기, 손인형 역할극, 꿈 이야기 그리기, 첫 기억 그리기 등	
분석심리	꿈 작업, 인형 만들기, 애니메이션 및 영상 시청 후 표현, 적극적 상상, 나/너의 상징 등	
인지행동	나만의 생각노트, 역할/상황극, 행동계획표 그리기, 스토리보드, A-B-C-D-E 과정 만화, 컬러논리 만들기, 버리고 싶은/갖고 싶은 나, 비언어적/언어적 영화 보고 나누기, 이완훈련 및 감정 온도계, 그림일기, 등	
인간중심	자유화, 자유조형, 상상의 세상 만들기, 꿈나무 등	
게슈탈트	지금-여기 나의 기분/모습 그리기, 신체감각 인식/표현하기, 감정 단어 찾기, 환상 지시문 듣고 상상 여행하기, 음악 듣고 감정 그리기, 그림 선택 후 이야기 꾸미기 등	

www.kci.go.kr

표 12. 상담이론별 미술활동 및 기법 분석 **(계속)**

구분	미술활동 및 기법	
	상담이론별	공통
현실치료	듣고/하고 싶은 말, 인생/행복욕구 계획표, 희로애락 그리기, 소원 낚시, WDEP 알기(욕구탐색), 성공체험 경험, 상황극, 미래/현재 나의 모습, 바램 평가서, 행동생활 계획서 등	난화, 콜라주, 만다라, 손 본뜨기, 점토, 가면 만들기, 색소금, 화산, 감정 파이, 자화상, 장점 찾기, 소망나무, 상장 만들기 선물 만들기, 동글화, 계란화, 웅덩이화, LMT, 동물 가족화, 9분할통합회화법, 인생그래프, 타임캡슐, 안전한 공간, 걱정인형 등
해결중심	기적그림, 기적/예외/대처/관계성 질문, 나의 자원/강점 찾기, 목표나무, 미래에서 온 편지, 해결 상자, 해결 주머니, 변화 나누기, 목표/성공 경험 표현 등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스트레칭/걷기, 소중한 존재, 명화 감상 후 표현, MBSR 소개, 호흡/정좌/요가 명상, 감정 알아차림 등	
긍정심리	감사일기 쓰기, 즐거운/적극적인/ 의미있는 삶, 내 안의 보물, 주인공은 나, 긍정 자화상, 용서/감사하는 마음, 과거 회상, 인생 설계, 기적 선물 만들기, 행복나무 등	
교류분석	스트로크 주고받기, PAC(자아상태) 경험, 긍정/부정적 스트로크, 너와 나, 의사교류 훈련, 인생 각본/인생 각본 수정, 에고그램, 교류패턴 파악 등	
기타	현재/과거 가족 이미지, 나의 묘비명, 가족 지도, 가족 역할극, 꿈꾸는 가족(미래), 행복한 마음 등	

Ⅳ.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KCI 등재 논문 151편을 분석하여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살펴본 후 상담이론별 연구내용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담이론의 효과적인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목과 초록에서 상담이론이 명시되어있는 151편의 논문을 연도별, 연구유형별로 분류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이론을 적용한 미술치료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연구(59편)와 실험연구(63편) 총 122편 논문의 연구내용별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의 연도별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2014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7편(4.6%)으로 저조하였다. 그러나 2015년 26편(17.2%)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하게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2021년 게재된 논문도 7편(4.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기준인 2021년 7월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1년 최종 논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게재된 논문 151편(100%) 중 인지행동이 30편(1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심리학이 17편(11.3%)으로 이상 2개의 이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인지행동은 2013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게재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 인지행동 미술치료 연구동향(민진욱, 천기정, 김태은, 2021)의 결과와 유사하다. 현실치료, 마음챙김, 긍정심리학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교류분석은 2016년, 대상관계는 2017년, 게슈탈트는 2018년 이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이다.

둘째,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의 연구유

www.kci.go.kr

형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연구 63편(41.7%), 사례연구 59편(39.1%)으로 미술치료의 과정과 성과를 연구하는 논문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술치료의 이론이나 프로그램 개발, 동향 등의 기타연구는 27편(17.9%), 조사연구는 2편(1.3%)으로 매우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미술치료 연구가 임상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선행연구(기정희 등, 2011; 김수빈, 홍은주,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례연구의 경우 인지행동 11편(18.6%), 인간중심 10편(16.9%), 정신분석 8편(13.6%)으로 이상 3가지의 이론이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통으로 인지행동과 긍정심리학이 13편(20.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현실치료 11편(17.5%), 해결중심 10편(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정희 등(2011)은 실험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험연구에서 개인의 정신역동을 다루는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기타연구의 경우 공통으로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인지행동이 6편(22.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사연구의 경우는 정신분석과 기타 이론에서 각각 1편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의 연구내용별 동향은 연구대상, 연구도구, 치료형태, 치료회기, 치료시간, 치료목표, 미술활동 및 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담이론이 미술치료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상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연구(59편)와 실험연구(63편)를 통합하여 총 12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연구와 기타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실제 미술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분류하기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은 성인 52편(42.6%), 아동 31편(25.4%), 청소년 30편(24.6%), 노인 5편(4.1%), 기타 4편(3.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성인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결과는 신문자와 이미선(2021), 윤라미와 박윤미(201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국내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동향 연구(기정희 등, 2011; 김수빈, 홍은주, 2008)의 결과에서는 아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미술치료 연구의 대상은 아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상담이론, 자아효능감, 불안 등 특정 주제에 따라 연구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을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인지행동,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이상 5개의 이론에서 성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간중심, 게슈탈트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치료는 비교적 다양한 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상담이론에서 노인 대상 미술치료는 미비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 미술치료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도구의 분석 결과는 122편(100%)의 논문 중 투사검사는 55편(45.1%), 객관검사는 116편(95.1%)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투사검사보다 객관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사검사는 총 73회(100%) 실시되었으며 KFD가 17회(23.3%)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투사검사의 경우 대상관계는 게재된 5편(100%) 모두 투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관계를 제외한 상담이론에서는 투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논문도 있었다. 객관검사의 경우 총 224회(100%) 실시되었으며 정신분석,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인간중심, 해결중심을 제외한 이론에서 복수의 객관검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객관검사가 활용된 비

www.kci.go.kr

율이 가장 높은 이론은 인지행동으로 총 24편의 논문에서 49회의 객관검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투사검사는 6편의 논문에서 6회 실시하여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술치료에서 객관검사는 단독으로 실시하지만, 투사검사는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없다는 선행연구(여울, 2016; 최미경, 2017)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도구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상담이론에 따른 연구도구 선정 기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연구도구는 상담이론보다 치료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한다. 또한 미술치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검사가 많이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료형태의 분석 결과는 집단 93편(76.2%), 개인 26편(21.3%), 혼합 3편(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높게 나타난 미술치료 동향의 최근 선행연구(민진욱, 천기정, 김태은, 2021; 최지원, 박윤미, 2021)들의 연구결과와 같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개인미술치료의 경우 인간중심이 8편(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지행동 6편(23.1%), 정신분석 3편(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3개의 이론이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대상관계, 해결중심, 마음챙김, 교류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단미술치료의 경우 인지행동은 18편(1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긍정심리 14편(15.1%), 현실치료 13편(14.0%), 해결중심 11편(11.8%), 교류분석 8편(8.6%)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은 개인과 집단에서 공통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치료회기는 10-15회기 미만이 62편(50.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20회기 미만 22편(18.0%), 20-25회기 미만 15편(12.3%), 30회기 이상 13편(10.7%), 10회기 미만 8편(6.6%), 25-30회기 미만 2편(1.6%)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5회기 미만이 70편(57.4%)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상담이론별 특징으로는 대상관계와 분석심리학의 경우 30회기 이상의 연구가 3편(60%)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치료, 해결중심,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교류분석은 25회기 이상의 미술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15회기 미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중심, 마음챙김, 긍정심리학에서 유일하게 10회기 미만의 단기 미술치료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치료형태와 연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85% 이상이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정신역동적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치료는 장기 미술치료가 진행되는 반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해결책에 초점을 두는 해결중심(김성자, 김갑숙, 2012) 등의 상담이론에서는 단기 미술치료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시간은 회기당 90-120분 미만이 44편(36.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90분 미만 37편(30.3%)이였으며 반면 150분 이상은 2편(1.6%)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대상관계는 60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치료목표는 자아 성장, 심리 건강회복, 스트레스 완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장애 극복, 기타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자아 성장 39편(25.5%), 심리 건강회복 33편(21.6%)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27편(17.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25편(16.3%), 부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15편(9.8%), 스트레스 완화 11편(7.2%) 순이며 장애 극복은 3편(2.0%)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아 성장과 심리 건강회복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는 선행연구 김수영과 홍은주(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상담이론별로 살펴보면 정신분석(4편, 50%), 인간중심(6편, 40%), 현실치료(6편, 37.4%)는 자아 성장이 높은

www.kci.go.kr

비율을 차지하였고 분석심리학(4편, 66.7%), 인지행동(7편, 24.2%), 긍정심리학(7편, 30.4%)은 심리 건강회복, 대상관계(3편, 49.9%)는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신분석, 인간중심, 분석심리학, 인지행동의 치료목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하여 진행하는 반면 해결중심과 대상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술치료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론한다.

미술활동 및 기법의 분석 결과는 난화, 콜라주, 만다라, 손 본뜨기, 장점 찾기, 가면, 감정파이, 인생 그래프, 소망나무 등 다양한 미술활동과 기법이 이론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이론과 치료목표에 따라 주제와 기대효과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미술치료의 프로그램 구성이 이론과 미술치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많다는 김소정(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상담이론별 대표적 특징으로 정신분석은 첫 기억 그리기, 자발적 표현, 대상관계는 중간대상 만들기, 분석심리학은 꿈 작업, 인지행동은 생각노트, A-B-C-D-E과정 만화 그리기, 인간중심은 자유주제, 게슈탈트는 지금-여기 난화 그리기, 현실치료는 행복 욕구 계획표, 해결중심은 기적/예외/대처/관계성 질문, 마음챙김은 호흡/명상, 긍정심리학은 감사일기 쓰기, 교류분석은 긍정적 스트로크 주고받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담이론별 미술활동 및 기법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으므로 각 상담이론에 대한 미술활동과 기법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미술치료에서 상담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방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국외 학술지 논문으로 확대하여 국내와 국외를 비교한다면 문화 차이에 따른 미술치료에서의 상담이론 적용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헌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활동과 기법을 각 상담이론의 특징만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상담이론에 대한 미술활동과 기법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담이론에 기반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담이론 기반 미술치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공마리아, 김갑숙, 박경규, 이근매, 임호찬, 전순영,... 최외선(2009). **미술치료개론**. 대구: 동아문화사.

곽진영, 원희랑(2019). 등교거부 청소년의 등교거부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6**(6), 1135-1157.

권석만(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웅용(2011).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 동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2), 463-483.

길은영, 장인희(2016). 융의 개성화 관점에서 본 우울성향의 중년여성의 미술치료중재과정. **인지발달중재학회지, 7**(1), 73-89.

www.kci.go.kr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김도희(2020). 캐나다 미술치료학회지의 연구동향(1985-2019): 논문 제목에 대한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6**(2), 165-195.

김미진, 강영주(2014). 아동미술치료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87-109.

김민주, 원희랑(2012). 기혼 여성의 우울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게슈탈트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9**(3), 677-701.

김성자, 김갑숙(2012). 해결중심이론을 적용한 모-자 집단미술치료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8**(3), 89-109.

김소정(2021). **불안에 대한 아동 미술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빈, 홍은주(2008).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 - 국내 미술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1994-2007).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71-86.

김수영, 홍은주(2019).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4-2018)을 중심으로 -. **예술심리치료연구, 15**(3), 101-121.

김인선(2014).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정신역동적 미술치료사례.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4**(1), 15-40.

김태완(2021). 미술치료자의 전문적 역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1), 1673-1684.

김형란(2013). **상담학개론 교재에 나타난 상담이론 내용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진욱, 천기정, 김태은(2021). 인지행동 미술치료 연구동향(2005-2020):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7**(1), 287-308.

박미숙, 이근매(2015). 성인미술치료의 연구동향 -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2005-2014).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67-87.

박성혜, 길은영, 곽진영(2021).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피와 이메이트.

배진영(2014).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공동육아와 일반육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로사, 전순영(2015). 뇌성마비 성인여성의 자아개념 및 자기표현의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적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2**(1), 221-247.

성자경(2011).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45-71.

소현경, 이근매(2017). 풍경구성기법(LMT)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43-62.

송은경, 원희랑(2018). 한국 노인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 일반노인과 의학적 진단 노인을 기준으로 -. **임상미술심리연구, 8**(2), 87-110.

신동열, 한상희(2016). **상담심리치료장면에서 쓴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신문자, 이미선(2021). 명상 기반 예술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및 고찰: 2010-2020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7**(2), 87-114.

어예지, 이모영(2018). 융의 적극적 상상을 활용한 미술치료가 군관심병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 (3), 137-156.

여울(2016). **치매노인 대상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5년 국내 논문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2011). **미술치료학개론**. 서울: 학지사.

윤라미, 박윤미(2017). 불안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동향. **미술치료연구, 24**(3), 701-718.

www.kci.go.kr

이명우, 박명희(2013). 미술치료를 활용하는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기반 사례관리 교육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195-213.

이미옥(2006). 한국의 유아미술치료 연구동향 분석. **미술치료연구, 13**(4), 707-725.

이보라(2020). **상담이론에 기반한 음악치료 연구 동향 - 국내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은, 박은선(2019). 미술치료사 발달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 국내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을 중심으로 -. **미술치료연구, 26**(5), 875-899.

이유경(2012). 융과 예술심리치료. **2012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pp. 1-16).** 충남: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장성숙, 이근매(2013). 청소년의 문제행동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95-418.

정여주(2003).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정대영, 정창숙(2015). 인지행동미술치료가 정서·행동장애 위험군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2**(4), 1133-1160.

정순택, 오현숙(2017). 북한이탈아동의 자기존중감과 또래관계 기술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례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3**(1), 107-135.

정유진(2019).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고양: 공동체.

정은주(2018). 20대 여대생의 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사례 연구. **인지행동치료, 18**(4), 413-433.

정하욱, 김갑숙(2018). 한국화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4**(3), 269-288.

조성호(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조용태(2014). 우리나라 미술치료(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고. **미술치료연구, 21**(6), 1163-1179.

지완종, 이은하(2019). 중년기 여성의 자기이해를 위한 정신역동적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2), 85-110.

최규진(2015).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 미술치료의 이해. **조형교육, 55**, 301-322.

최명선, 김봉환(2014).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미술치료연구, 21**(3), 431-456.

최미경(2017). **노인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2000년-2017년 학위논문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경, 정영인(2017). 자아존중감에 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 2000년-2016년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4**(4), 907-926.

최외선, 이근매,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최윤희, 김갑숙, 최외선(2005). 한국·미국의 미술치료 연구 동향. **미술치료연구, 12**(3), 507-544.

최은영, 이은봉, 조규영(2015). 우울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 동향. **통합심신치유연구, 2**(1), 42-71.

최지원, 박윤미(2021). 청소년 미술치료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7**(1), 337-364.

트렌드모니터(2020. 8. 19). 당신의 '정신건강'은 안녕하십니까? 행복보다 불행에 가깝고, 마음에 생채기 가득한 현대인들.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969&code=0404&trendType=CKOREA

하애희, 이수연(2012).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6), 1415-1436.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www.kci.go.kr

한숙자(2002). 미술치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수논문집, 6**, 235-267.

Brown, F. G.(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4), 263-272.

Corsini, R. J.(Ed.). (2002). *Encyclopedia of psychology (2nd ed)*.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Gerlitza, Y., Regeva, D., Snir, S.(2020). A relational approach to art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68*(1), 1-9.

Hogan, S.(2017). **심리상담 이론과 미술치료**[*Art therapy theories*]. (정광조, 이근매, 원상화, 최애나 역). 서울: 전나무숲(원전은 2015년 출판).

Huss, E.(2015). *A theory-based approach to art therapy: Implications for teaching,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England: Routledge.

Malchiodi, C. A.(2012). *Handbook of Art Therapy, Second Edition*. New York, NY: Guilford Press.

Murdock, N. L.(2019). **상담 사례에 기반한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ase approach*]. (이은경, 이은진, 주영아, 이문희, 박찬정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17년 출판).

Rubin, A. J.(1984). *The art of art therapy*. NewYork, NY: Brunner/Mazel.

Rubin, A. J.(2001).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2nd edition*. New York, NY: Taylor & Francis LLC.

Rubin, A. J.(2016).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3nd edition*. New York, NY: Taylor & Francis LLC.

투 고 일: 2022년 04월 12일
수 정 일: 2022년 06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07월 17일

www.kci.go.kr

미술치료연구 제29권 제4호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22. Vol. 29, No. 4, 1061～1082
https://doi.org/10.35594/kata.2022.29.4.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t Therapy Based on Counseling Theory:

Focusing on Korean Journal Articles (2011-2021)

Dong, Hye-Jung Park, Sung-h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by examining the overall trend of art therapy research based on counseling theory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earch content trends for each counseling theory. Among the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rom 20 11 to July 2021, 151 papers with counseling theory specified in the title and abstract were selected; classified by year, research type, and research content; and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rend by year was the most studied in 2015 and cognitive behavior was studied the most. Second, experimental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trends by research type. Third, based on examining the trends in 122 studies that conducted actual clinical trials, adults were the most common subjects and were studied at a high rate via psychoanalysis. As for the treatment type, the group setting was the most common, and the object relationship and cognitive behavior were studied at high rates. In the treatment session, psychoanalysis, relational theory, analytical psychology and cognitive behavior were conducted more than 30 times. Self-growth was the most common treatment goal, and psychoanalysis and person-centered theory were high. Art activities and techniques were found to use characteristic methods according to the counseling theory and treatment goal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then discussed.

Key Words : Art therapy, Counseling theory, Research trends

www.kci.go.kr